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nu.ac.kr

2012년 5월 9일 수요일 제869호

장애인인권위 독립은 언제?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현재 총학 산하기구… 예비비로 재정 운영

인권위는 총학생회 회의 참석하지 않아

‘인권위 독립’ 총학 공약 아직 안지켜져

장애인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편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창립된 장애인 인권대책위원회(이하 인권위).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이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소속 학생들은 인권위가 현재 총학생회 산하기구라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지선(사회학과 3)씨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행사 개최와 인권위를 운영하는데 간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위의 보자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인권위가 학생자치기구의 최고의 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다고 꼬집는다. 백승관(사회학과 4)씨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라서 중앙자치기구 정기총회에서 발언권이 없나”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책정한다. 예산안

는 별 다른 얘기가 없었다.

한편 이공일이 총학생회가 작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권위 독립을 약속했다.

김성훈(경영학과 3) 위원장은 “작년에 인권위를 방문해 인권위를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본부 시절 지난 11월 2일자 제주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장애인인권대책위가 총학생회와 같은 위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현재 총학생회 산하기구에 있는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를 독립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당선 후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인권위가 독립하면 학교에서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금을 줄지 모른다”면서 인권위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앙대는 장애인 학생 단체가 보다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혜성 위원장은 “인권복지 위원회는 특별자치기구로 존재한다”면서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을 가지고 정기총회에서 최종의 결승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언하고 싶어도 발언할 기회도 없다. 총학생회 산하기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산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올해도 인권위가 예비비로 운영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산해 올린 예산을 말한다. 예비비로 인권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다.

한 학생은 “졸업준비위원회도

예비비로 운영되는데 졸업준비위원회와 인권위의 예산이 비슷하다”며 “졸업준비위원회에 비해 하는 일이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인권위 학생들은 총학생회 산

하기구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총학생회와 교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간부 회의 때도 참석하지 않는다. 예년에도 대동제 행사계획 보고 외에



젊음의 계절, 5월을 당기다 지난 2일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청맥체전’이 대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언론홍보학과와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선정… 지원액 26억원

작년 대비 19억 감소…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희비 엇갈려

학부교육선진화 지원사업은 올해도 탈락

제주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로 26억4500만원을 받는다. 전년도 45억5900만원에 비해 19억 가량 줄어든 액수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을 평가한 뒤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평가는 항목에는 취업률 지수,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성과 및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다. 국·공립대의 올해 지표에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비 건전성 등 선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제주대는 지난 3월 21일 ‘제주대학교 총장 후보직선주천제도 개선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해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를 받는데 일조했다. 총장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9억 가량이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찰이 심했던 총장직선제를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문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매년 받던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못 받는다고 거론했었다”며 “개선을 했는데도 줄어들었다면 화가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중 장학금을 위해 썼던 예산이 11억에서 1억으로 대폭 줄어든다.

대학본부에서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대부분 대학에서 예년에 비해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산하기구인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에 비해 약 30억원이 증가된 47억여 원을 학생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장학금, 취업캠프,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쓰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평년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예년에 비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에 많은 대학이 선정된 것도 사업비

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문자은(기획평가과) 실무관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주는 장학금이 많다 보니 교육역량강화 사업비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금액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지원금 감소에 대해 양덕순 기획처장은 “장학금 부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액수는 4억 정도”라며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들만 정리다면 학생들의 혜택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양 처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도 있지만 취업률 등 학생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업비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탈락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한해 선발하는데 제주대는 이번에 새로 선정된 3개 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동현 기자

제5대 교수회장에 이상봉 교수 당선

10월 말까지 6개월 임기

이상봉(회계학과) 교수가 제5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5대 교수회장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이상봉 교수 가 352표 중 186표(52.8%)를 획득, 고영철(언론홍보학과) 교수(163표, 46.3%)보다 23표 앞서면서 최종 당

선했다.

▶ 인터뷰 4면

앞서 열린 1차 투표 결과 △고영철 교수 128표(33.9%) △이상봉 교수 121표(32.0%) △김두경(경영정보학과) 교수 30표(7.9%) △권영호(법학과) 교수 96표(25.4%)로 고영철 교수와 이상봉 교수가 각각 1,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전임교원 561명을 대상으로 치러

진 이번 투표에서 1차 투표 67.3%, 2차 투표 62.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사퇴한 양길현 전 교수회장을 비롯해 제4대 교수회 임원들이 총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5대 교수회의 임기는 오는 10월말까지이다.

김명지 기자

이상봉 신임 교수회장 인터뷰 ▶4면 특성화사업단 현장 - 한국사회과학연구단 ▶5면 장애인 휠체어 체험기 ▶8면

청년 취업박람회 오는 18일 열린다

2012 청년 잡페어(Job Fair)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제주대, 제주관광대, 한라대 총학생회가 함께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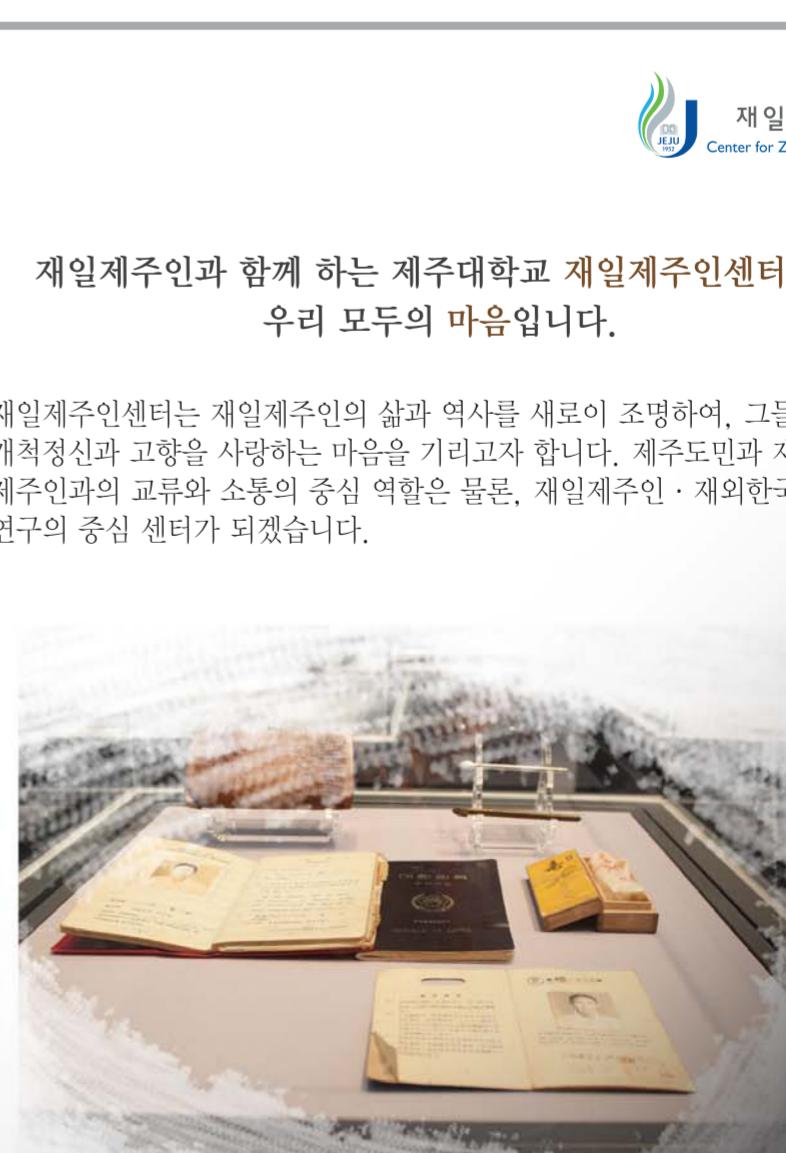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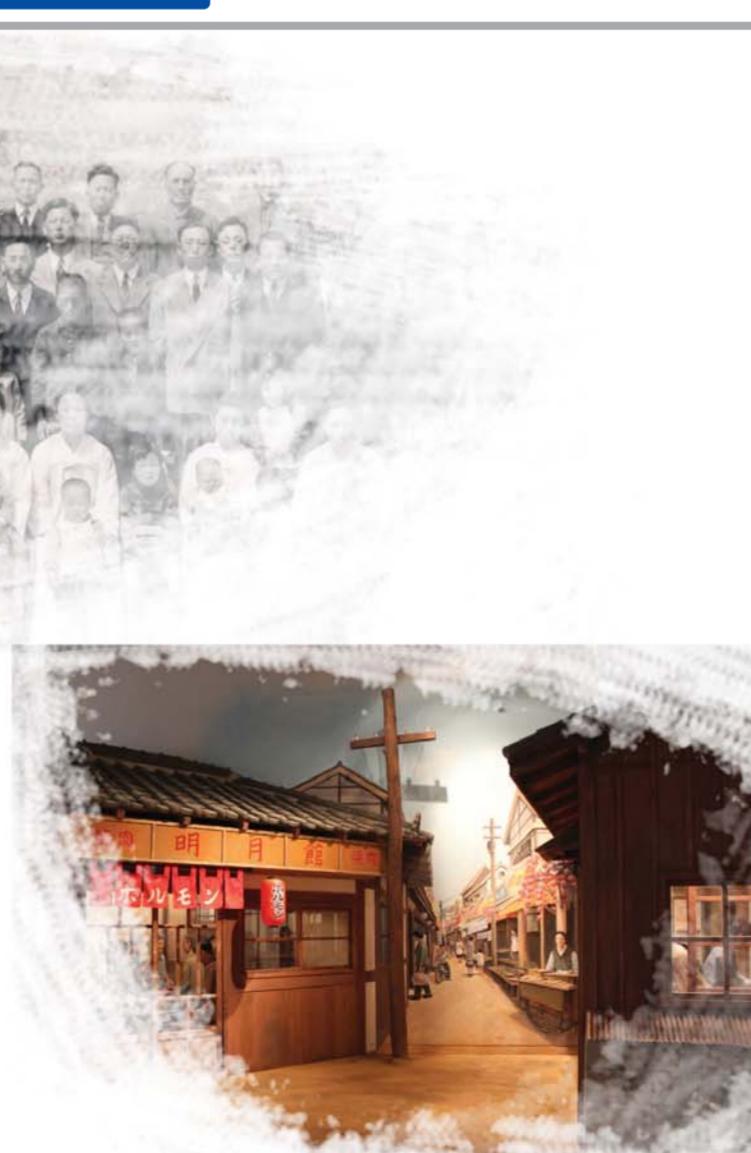
이번 박람회에는 네슨, 다음, 제주은행 등 24개업체가 참여한다. 이 중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은 16개, 모의면접 및 카운슬링을 하는 기업

은 7개, 설명회를 하는 기업은 10개 기업이다.

박람회는 면접 부스와, 의상이나 메이크업 등 키운슬링을 해주는 부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준호 총학생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했기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새로운 교수회에 바란다

지난 5월 1일 새로운 교수회가 출범했다.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인 6개월이다. 전임 교수회장단의 활동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화합'과 '제도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각오로 임한다면 이 기간도 짧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교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학칙 제14조에 의거하여 학칙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교수회 규정을 보면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에 교수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응호함"에 교수회의 목적이 있다. 이번에 교수회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것도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교수회 총회 참석자들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총장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경원감축과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는 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는 상황에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압도당해 있었다.

다행히, 교과부가 구조개혁의 칼을 덜 수 없는 대학들이 직선제를 고수하기로 함으로써 직선제폐지

여부가 구조개혁대상 대학선정의 기준이 되지는 못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대학들 대부분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와 같은 사태의 주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본부와 맞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교수회장단의 결단은 돋보이게 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대학총장직선제는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제도가 '당근과 채찍'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속은 쟁어야 한다는 대학 본부에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직선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 대학선진화의 핵심이라고 본 교과부의 직선제폐지유도 방안은 유치한 것이었다. 지난 4월의 직선제폐지 찬반투표에서 상당수 교수들이 찬성한 것은 제자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선제를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2013년 말의 총장선거가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화합' 차원에서는 평의회에서 지적된 단과 대학별 예산지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새로운 교수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건투를 빈다.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국토부 직권취소는 위헌”

오수용 교수 문제제기

“지방자치제 내용 침해… 외국 어디서도 볼수 없어”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 장관은 기간을 정해 시장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명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경지 처분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소 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인터뷰 제5대 이상봉 교수회장

“소통으로 갈등과 반목 치유… 현 사태 해결에도 앞장”

국교련과는 지속적인 연대 도모

대학 재정회계 운용 시스템 개선 시급

-교수회장을 맡은 소감은.

“제4대 교수회 총사퇴로 축발된 이번 비상사태에서 교수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 교수님들의 성원에 감사하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대학 교수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겼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으로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교수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 시급한 것은 갈등과 반목을 잘 풀고, 화합하는 일이다. 또한 앞으로 총장 선출 규정 방식을 어떻게 해야 구성원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대화를 통해 방법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임기 동안 대학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데도 힘을 쓰겠다. 어찌 보면 임기가 6개월인 비상교수회다. 교수회장이 해나가야 할 일은 많지만 많은 일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시일 내에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이 고쳐야 할 불합리한 제도는 무엇인가.

“회계학과 교수로서 대학 재정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적잖은 문제점이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장을 맡는 동안 학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며 개선에 힘썼으나 쉽지 않았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대로 의견 반영을 할 수 없었다. 평의회에서 우리 대학 예산 시스템을 비롯한 대학 살림과 관련한 제도를 바꿔 놓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 교수회장에 출마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불합리한 재정운영시스템은 이제는 고쳐야 한다.”

-총장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후 직전 교수회가 대학 본부의 움직임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학내 비판 여론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총장 선출규정과 관련한 움직임이 몇 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지난 교수회는 미리 의견 수렴을 시작하지 않았다. 반면 본부는 총장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교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과 투표가 이뤄져야 했다. 찬반투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갑작스럽게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은 너무 극단적 이었다고 본다. 충분히 내부 토론을 하고 대학 본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다. 결국 총장 직선제를 지키려는 교수와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총장 직선제 개선안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전 교수회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차원에서 교과부 장관 불신임 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국국공립교수연합회에서 논의되고 실행되는 활동들이 우리 대학 교수들이 대체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앞으로 국공립교수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단과대학별로 적정 인원을 교수회 임원으로 모시고, 정기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이제는 교수들이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 어렵다. 교수회 체육 대회를 다시 열어 서로 단합하고자 한다. 평의회 의원들끼리도 대학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 모여 머리를 맞대겠다.”

-교수회가 대학 본부를 상시 감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총장이 학교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 대립 각을 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수도 쳐주면서 독려해야 한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



가 필요한 상황이다. 총장 혼자만이 모든 학교의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수회도 학교 운영에 공동 책임을 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대학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완벽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제도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장점만 내세우며 자신의 의견 만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와 화합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명지 기자

주요 약력

△회계학과 교수 △제주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 △동국
대 경영학 박사 △2010. 1. 1~2011.
12.31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2008. 9. 1~2010. 8.31 대한회계학
회 부회장 △2008. 3.31~2010. 2.28
경상대학장 △2005.11.5~2011.
10.31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1999. 4. 1~2000. 3.31
제주대 경영경제연구소장

“본부와 ‘비판적 협력체제’ 구축

잘못한 일에는 비판·견제하고

잘한 일에는 칭찬을 해줘야”

면 비판을 하면서 교수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투쟁이 되선 안 된다. 서로 이야기를 자주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상생의 견제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학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5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은 긍정과 도전의 힘

정상은 내 가슴에

강태선 블랙야크 대표



“전국 1%의 제주를
결점이 아닌 긍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회사 직원들에게 ‘안 됩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모르면 배우고 연구하면 되고, 없으면 찾으면 된다. 학생들은 설령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저지르면 답이 무엇인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다. 또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조차도 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와 함께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르게 싸워야 한다. 다르게 싸운다는 것은 도전한다는 의미다.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지난 1월에 블랙야크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패션쇼 참여를 놓고 고심하자 직원들마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렸다. 게다가 디자이너도 아닌 그룹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는 블랙야크가 유일했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다른 업체들과 싸워도 경쟁력이 충분했다. 한국적인 디자인에 히말라야 문화를 섞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패션쇼 배경음악 하나에서부터 전陲일률적인 음악이 아닌 네팔 고유 음악을 틀며 현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다음날 홍보부스에는 현지 아르바이트생이 넘더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다르게 싸운다’는 전략이 먹혀들었던 셈이다.

1973년 26세 때 처음 등산용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등산복과 코펠, 텐트 등 등산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당시는 등산인구가 거의 없던 시절이어서 주변에서는 분명히 사업에 실패할 거라고 비아냥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도전을 통해 40년이 지난 지금 ‘블랙야크’라는 사랑받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8년에 중국에서 ‘블랙야크’ 1호 북경점을 냈을 때였다. 북경 1호점은 내고 12년이 지나니 중국은 전세계 아웃도어 브랜드가 각축을 벌이는 춘추전국시대가 됐다. 하지만 중국 이웃도어 시장을 개척했던 ‘블랙야크’가 현재 중국인 등산용품 선호도 1위이다.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광고 카피를 비롯해 대부분의 광고 카피는 내가 직접 만든다.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사람이 가장 약이 오르는 것 바로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신문에 ‘블랙야크는 만리장성을 지킨다’고 실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나들이 뿐데 만리장성을 지킨다’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화제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라이나 같이 만리장성을 지키자고 제안했고, ‘블랙야크’ 아닌 ‘블랙야크도’ 만리장성을 지킨다고 광고 카피를 수정하며 중국인들의 호

성공하려면 생각과 의지가 우선

당신의 삶에 이기는 습관을 심어라

전옥표 위닝경영연구소 소장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습관부터 바꿔야 성공한다. 결국 성공을 위해 바꿔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닌 ‘습관’이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한 방법을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소한 습관들을 바꾸면 된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인생 공식에서 습관은 단지 하나님의 요소만이 아니고 생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인격이 운명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매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에 접근했다. ‘새 안경테로 날마다 바꿔라(Frame)’, ‘로드맵을 다시 그려라(Process)’, ‘운이 좋은 쪽으로 접근하라(Relationship)’, ‘근원적 변화를 추구하라(Value)’다. 성공한 기업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빌 게이츠는 자기 단점을 빨리 버리고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게 습관화됐다. 위런 버핏은 퇴근해 집에서 출근할 때까지 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다. 고정주 영 회장은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신문을 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고 성공하는 좋은 습관을 익히기 위한 비법으로 습관은 바꾸기 쉽다고 생각하고, 나쁜 습관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며, 좋은 습관을 학습해야 한다. 우선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습관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습관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몸과 정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 속에서 좋은 습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늦잠자는 습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에 가면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다. 어려운 스스로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쉽게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변화를 쥐어야 한다. 즉 소위 말하는

‘his story’에 따라가지 말고 ‘my story’를 만든다면 충분히 변화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면 좋다. 이를테면 ‘난 당장 살을 빼겠어!’가 아니라 ‘매일 저녁은 먹지 않겠다. 계단은 걸어서. 훌리는 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몸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군대에서의 ‘병장’은 항상 후임병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심부름을 시킨다. 그 행동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어떤 활동이 없다. 그러나 보니 병장들은 발전이 없고, 시간도 안 있고, 항상 짜증만 가득하고 계를

지고, 긍정적인 느낌 없이 시간만 보내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다행이 나의 병장생활은 시간이 잘 갖던 것이 항상 먼저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소대장의 신임을 받아 중대를 이끌었던 기적이 난다.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첫 입사 후 사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찾는 등 활동영역이 크다. 하지만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시로 대체되며 마련이다. 한 발짝 물러나서 보게 되어, 스스로 움직임을 줄여가기로 자신의 가치를 줄여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기는 습관을 위해서는 각자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스스로를 위한 계획을 하고 이를 선언하여 그를 공고히 한 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 강연을 나누면서 기업에서 ‘운’ 타령을 하곤 한다. 운이 좋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지닌다는 것이다. 매번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도 불평불만이 쌓인다. 만족한 경험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더 중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부모가 부자인 것, 시골에서 태어난 것을 탓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고정주 영 회장도 초등학교 밖에 나오질 않았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를 중퇴했다. 미국의 기업인 창업주나 CEO의 90%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 사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지 대해 메시지를 던진다. 누군가 정답을 정해줘서 학점 따고 공무원 시험 패스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거기까지가 한계다.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무궁무진하다. 내가 만들어가는 걸 ‘창의’라고 한다. 창의적으로 실행하면 세계적인 길로 갈 수 있다.

리더십의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전략이나 전술을 잘 짜고 행하는 사람의 의지나 행동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또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와 하고 싶다는 ‘열정’,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조직의 성공을 가른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순환 리더십

유영대 남서울대학교 교수

선순환(Good Cycle)이란 개인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 상호간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상승효과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오랜 군대 생활을 해오면서 현장에서 적용하고 체험한 기본 원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선순환 리더십 모델을 개발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일정적인 노력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면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고,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면 매출 증대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 늘어난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발전 및 직원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직원 복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 바로 기업의 선순환이다.

21세기는 리더십의 시대이다. 하지만 리더십의 기준 또한 시대 변화를 거치며 바뀌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리더십의 중심이 시장에서 지원으로, 군림에서 봉사로, 리더 중심에서 멤버 중심으로, 기법 중심에서 기본 중심으로, 물질적인 동기에서 정신적인 동기로 바뀌었다. 이는 모두 선순환 상호 역할에 초점을 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선순환과 악순환이 결정된다. 선순환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선순환이 돼야 한다.

내셔널 파나소닉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스케와 미국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되었던 로저 롤스는 기본에 충실했던 삶,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생각 같은 악순환의 고리 차단, 주인정신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나와 상대방의 원원 전략을 통해 시너지 창출, 칭찬과 격려, 임파워먼트를 통한 잠재력과 창의성의 국대화, 선순환 반복으로 연쇄적 상승효과와 창출 등의 선순환의 원칙을 가장 실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변화와 혁신의 제일 큰 걸림돌이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전환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이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다.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는 태도가 여러분의 행동을, 습관을 결정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고쳐나가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CEO가 될 것, 아는 사람에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현장을 잘 파악할 것,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할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것,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 유연하고 논리적이며 감동을 주는 관리자가 될 것 등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원래부터 주어진 길이란 없는 것인데, 사람이 계속 걷다 보니 길이 된 것처럼 원래 주어진 운명이나 정해진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운명이나 미래가 정해지는 것을 알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앞좌석에 앉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는 만큼 만들어지는 창조의 대상이다. 나의 시선과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무기는 ‘인간성’이다. 요즘 세계는 인재전쟁을 겪고 있다. 인간성을 갖춘 인재가 만명을 먹여 살린다. 예전 아날로그 시대가 비행기 속도로 변화를 겪었다면 디지털 세대에서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예전엔 관리자, 오늘날에는 지도자가 세상을 이끈다. 이를 위해 빨리 걷고, 앞좌석에 앉으며,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빨리 걷는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있다. 뜻이고, 앞좌석에 앉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항상

학술기고 에너지에 대한 단상

LNG발전소는 '무공해' … 제주는 청정연료 LNG 사용해야

박 윤 칠
기계공학전공 교수

에너지소비효율 규제강화와 같이 제품생산 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력사용의 말단인 모터의 효율개선 사업이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동력(움직이는 구동력)을 얻는 것이고, 구동력은 모터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터의 효율개선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분야이다. 모터의 효율개선은 한전,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사에서 몇십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의 핵심이다.

둘째는 에너지절약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력누진제 강화, 한 등 끄기 운동, '승용차 없는 날'과 같이 자가용 안타기 운동이다. 전력누진제의 경우는 효율향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필자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승용차 안타기 운동은 승용차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급, 버스의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그런데 인구증가와 GDP증가에 동반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에 있다.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동안 치중하다보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렵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한 환경오염을 동반하게 된다.

제주도도 에너지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의 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경제 즉, 관광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며, 이것이 제주민이 살아가는 기초 인프라이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인 청정자연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조금씩 파손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에너지사용에 있어 몇 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에너지효율의 개선

에너지효율개선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로등 격등제가 아니고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 등과 같은 효율개선사업이다. 정책적인 효율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 라벨링(Energy Labelling),



행운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들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법으로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21세기의 에너지절약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절약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의 밸류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새로운 에너지의 이용, 즉 연료 대체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및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11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및 풍력이 대부분이다. 태양에너지 및 풍력은 날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에너지밀도가 낮고 지열의 경우에는 제주지역의 지질구조의 특징으로 육지에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운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풍력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듯이 제주가 가장 우수한 풍력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주 도민에게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단지 개념의 해상풍력으로 보급방향을 잡고 있어 보급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보급저조 및 낮은 발전단가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열의 경우는 전도에 의한 지중열교환기에서 제주의 지질구조를 반영한 지하공기열을 이용한 대류열전달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태양열의 경우에는 현재 난방까지 가능한 설비가 보급되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보급되었던 태양열온수기의 낮은 신뢰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미래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환경적인 접근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분야에서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를 살면서 고민해야 할 전술한 내용에 더불어 지역적으로 도서라는 고립된 섬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한국전력의 전력차단사를 바라보면서 건설중인 제주도의 LNG인수기지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애월항에 건설 중인 LNG인수기지는 2004년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법으로 발전용과 민수용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6년 제5차 계획에서 발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민수용 2만5000㎘의 용량을 갖는 2기의 저장탱크가 2017년까지 건설되어 통영에서 신규 소형 LNG선을 통하여 수송하기로 결정되었다.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사용에 있어서 가정용 연료 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청정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80~90%의 차량이 CNG차량으로 운행 중이나, 제주의 경우는 아직도 경유 차량이 대부분이며, 발전연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수용 보다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존의 유류 발전소를 LNG발전기로 대체하고 발전용 LNG연료를 도입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2012년으로 예정된 제6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제주도의 발전용 LNG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고, 단전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거나 때문에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도서지역이므로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에너지자립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일 사료 철저히 분석 독도영유권 연구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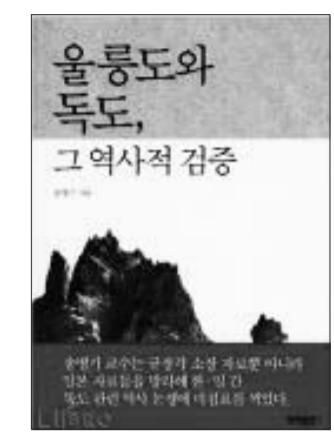
해마다 2월이면 일본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망언을 쏟아낸다. 우리 영해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주장은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이 결국 일본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본 내의 반응은 즉각적이기까지 하다.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일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데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는 송병기 원로교수의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역사공간, 2010)은 국내는 물론 일본 영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17세기의 사료를 치밀하게 분석해 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치명적 오류도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동안 한국 사학계에서 치밀하게 논증하였던 각각의 사실에 대한 사료분석으로 지리적 인식의 확대와 조선후기 도서(島嶼)정책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주된 대상이다.

5장에서는 고종대의 울릉도에 대한 직접 경영의지를 확인하는 검찰사의

송병기 저작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은 새로운 포경법의 도입과 포경기지의 확득에 주력하게 되었고, 동해에서 러시아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포경전이 개시되었다.

산업 지원 확보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각축은 울릉도의 전략적 위치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1899년 10월 러시아 측의 항의로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조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내륙에 있는 일본인의 철수까지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조선 내의 일본인 철수 거부와 울릉도 일본인의 '거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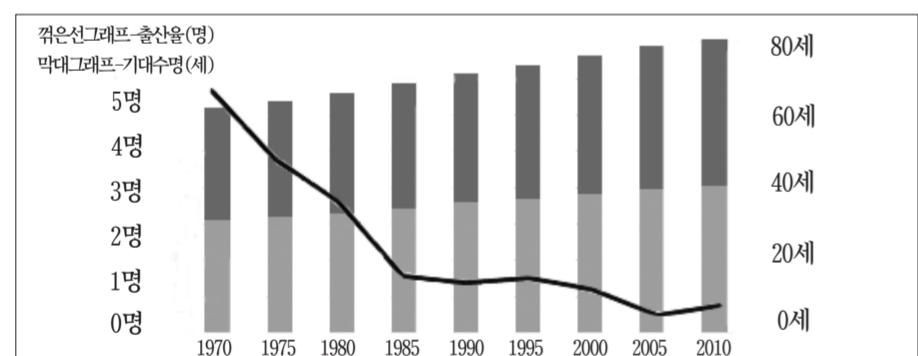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모두 울릉도를 군사전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결국 라-일전쟁으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7장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침입 내용을 다룬 울도군수인 '심홍택 보고서'를 주제로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압력을 드러내는 대목이 눈에 띈다. 특히 '심홍택 보고서'는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강원도관찰사'에서 밝혀낸 것이어서 원로교수의 열정을 짐작케 한다. 8장은 첨예한 논쟁들의 핵심을 근간으로 하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검증을 정리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논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독도에 대한 여러 사안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일간 영유권 주장의 표기 방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한국 영해에 속한 독도에 대한 주장은 그들이 제시하는 사료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쟁'으로 비약하고 싶은 것이다.

때문에 자칫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으로 비쳐진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독도에 대한 논의는 한-일 간의 역사논쟁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전영준
사학과 교수



특성화 사업단 현장 <9> 한국사회과학연구단

지속 가능한 삶 위해 공유재로서의 물·바람·토지 연구

물, 바람, 땅. 어느 것도 애초에 인간이 소유했던 것은 없었다. 그저, 샘물로 목을 죽이고, 땅의 양분을 먹고 자리난 곡식을 먹고, 바람이 주는 숨을 들이쉬며 살면 그만이었다. 토지를 거래하기 시작하며 점차 자연들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공공재였던 자연이 시장 속에 놓이며 자연은 수탈적 개발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의 삶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제주대 한국사회과학연구단(SSK, 단장 최현 사회학 교수, 이하 연구단)은 물, 바람, 토지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구단은 한국 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연간 약 1억 2000여만원을 지원받으며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은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제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단은 이 사업의 '위험사회 도래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공모에서 선정됐다. 연구단은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물, 바람, 토지를 중심으로'를 연구주제로 삼고 선별 연구 검토와 문헌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연구단은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공공적으로 관리하면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자연의 공공적 관리를 통해

자연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개발·훼손해선 안 돼

자연의 사유화에 대한 해결책 제시 위해 연구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와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

최현 단장은 연구주제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결국 사회불평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을 수탈하는 방식으로는 어려

고, 정의롭고 공정한 자원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 단장은 "우리는 모두 자연에서 혜택을 받는데, 더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차이가 커지면 결국 자연환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거나 때문에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도서지역이므로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에너지자립은 그 중요성이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미래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높은 관심을

마련에 관한 예를 들었다. 최 단장은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산소를 만들어서 전 지구인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작 불평등으로 인해 아마존 사람들의 삶의 유지가 어려워지면 자연도 유지되기 힘들어진다"며 "잘 사는 나라는 나라는 개발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아마존 사람들에게 계속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불평등은 결국 '자연의 사적 소유'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연의 사적 소유가 점차 확대되면서 자연의 소유에서 나오는 혜택들도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돼 왔다.

최 단장은 "자연을 공동체에서 소유하더라도 적절한 제도와 룰을 만들어내면 자연을 보호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수탈해야하는 존재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호해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단에서는 자연을 공동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모델을 찾고 있다. 연구단은 자연의 사적 소유와



지난 3월 30일 진양관(인문대학 1호관) 복합회의실에서 SSK가 '자유 공유재(물) 정책과 연구 현황'을 주제로 워크숍을 하고 있다.

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적 소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하와이와 일본 등 섬 지역에서 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지조사와 함께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또 스위스 애비앙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지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의 바람 공유화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진양관(인문대학 1호관) 복합회의실에서 '자연 공유재(물) 정책과 연구 현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워크숍에서는 김자경 전임연구원이 '일

본의 물정책과 플래시 방류 사회실험에 관한 공유재 이론적 접근'에 대해 발표하고, 정희종(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씨가 '제주도 지하수 정책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단은 오는 8월까지 기초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사회에 대두되는 물과 바람 등의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람들에게 이의이 환원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들의 연구가 최근 논란의 도마에 오른 제주의 물과 바람의 사유화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지 기대된다. 고용희 기자

기고 한진 제주퓨어워터와 한-미 FTA

제주 지하수 개발허가는 대자본에 대한 특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첫째,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4반세기 가 넘는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왔으며,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내준다면 민간 대자본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둘째,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수를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개발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필요한 수량은 더 이상 자체개발이 아닌 지방공기업인 삼다수로부터 구매하면 된다.

셋째,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호)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량 확대

그러나 한진그룹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은 이미 지난해 11월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고, 지난 5개월 동안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데도 갑자기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가 이번에 신청한 지하수 증산량은 앞으로 10년 이상의 계획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필요수량을 허가해 줬다.

공기업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쓰고 있고, 사기업은 공공수자원으로 규정된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해서 사익을 취하려 한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사회공공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는 제주도지사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공기업의 지하수 대량개발 보다는 FTA 조항을 이용한 외부 대자본의 지하수 사유화다. 이제는 한진그룹에게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계속 내줘도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이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한다면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 달성할 수 없어…

ISD 조항 등 한미FTA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 붕괴 초래할 수도

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에 대한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 용허가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한진그룹에 의한 지하수 사유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계속 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붕괴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O)와 역전방지 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

특히 "미래유보조항(FTA 적용을 유보한다는 뜻)에 포함된 환경서비스 중 '음용수 처리·공급'에는 '먹는샘물'이 포함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즉, 상수도는 공공 환경서비스라서 FTA를 적용하지 않지만, 먹는샘물은 일반 상품이기 때문에 FTA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한·미 FTA 투자부문에는 "자국 투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라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조항이 있다. 즉,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이라는 한국 투자자는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하는데, 왜 자신들에게는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면서

이미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 발효가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하였지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은 2013년 11월 24일까지 연장되었다.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미 FTA에 의해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우근민 지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바란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FTA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환경부 국제협력관실에 전화문의를 했다. 우리 정부는 "먹는샘물을 관련된 제주특별법 조항은 FTA 협상과정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 삼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미국 투자자는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위반을 주장하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O)를 이용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를 공격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제주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FTA는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신법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보다 한-미 FTA가 우선 적용된다"고 답했다. 결국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민간 투자자에게도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개발 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FTA가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이미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 발효가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하였지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은 2013년 11월 24일까지 연장되었다.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미 FTA에 의해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우근민 지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바란다.

제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9> 김지순·양용진 모자(母子)

향토음식에 힐링문화 담겨 대를 이은 가치 재조명 작업

조리실에 들어서자, 고소한 향이 진동했다. 자리 지지는 냄새였다. 이어 된장찌과침과 각재기구이, 매밀북적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조리실 가득 제주 음식 향이 풀풀 풍겨댔다.

그곳에 모자(母子)가 있었다. 어머니 김지순(76·제주향토음식명인 제1호)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과 아들 양용진(48·부원장)이었다. 모자는 제주향토음식을 재현하느라 분주했다. 제주향토음식을 표현해 달라는 물음에 "제주의 돌담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며 자연과 조화되듯,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 재료 본연의 맛을 담아냅니다"고 말했다.

제주향토음식이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지니기 위해 뿌리를 토보존하는 이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지순 양용진 모자는 "음식은 생활문화에서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음식들이 잘 변용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모자가 이렇게 제주향토음식을 보존하고 전승하기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한다. 제주에서 태어난 김지순 원장은 1955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제주음식과 타 지역음식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시작된 관심으로 김 원장은 1973년 산업정보대 관광호텔조리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과 함께 제주향토음식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김 원장은 요리학원을 열어 본격적으로 제주향토음식을 알려나갔고, 미국과 일본에도 오가며 외국인들에게 갈치국, 빙떡김치 등 당시 생소했던 제주향토음식을 소개했다. 또 김 원장은 1998년도 제주향토음식의 특징과 조리법 등을 담은 책자 <제주도음식>, 2001년 <제주향토음식문화>를 출간했다.

양용진 부원장은 올해로 18년째 향토음식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 부원장은 처음부터 향토음식 연구를 업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는 본래 서울에서 문화기획과 관련한 일을 하다가 제주에 흘러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제주에 내려왔다.

양 부원장은 "제주에 내려와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정리해 둔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느꼈다"면서 "이



김지순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좌)와
양용진 부원장(우)

떻게 귀중한 자료가 단절되거나 준중 받지 못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함께 연구를 시작한 모자는 지난 2000년 후학들과 함께 본격적인 제주향토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주향토음식연구원을 설립했다.

김지순 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 2009년 제암문화재단에서 제암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제주향토문화명인 제1호에 선정됐다.

그럼에도 모자의 향토음식에 교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요리학원에서는 한 달에 한번 '고미제'라는 제주향토음식강좌를 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찾아와 강의를 받기도 한다.

김지순·양용진 모자는 앞으로 제주향토음식이 단순한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향토음식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까지 들여 볼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민속문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용진 부원장은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순환을 지향하는 제주향토음식 속에, 바로 욕심을 버리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힐링문화가 담겨 있다"며 "어머니께서 그동안 제주음식을 재현하고 기록하는데 힘을 기울이셨다면, 저는 앞으로 제주음식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가 올바로 인식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옛 제주대병원 활용 방안은?

창업보육센터·대형음식점으로 구도심 활성화 도모

창업보육센터에 35억 투입… 64개 업체 입주 계획

일부는 민간기업 임대 후 대형음식점으로 조성

연말까지 사업가시화 안 될 경우 원점서 재검토

옛 제주대병원 활용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3년째 끌어온 이 문제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동 신축 부지로 이전된 지 3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옛 제주대병원 내 신관과 구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로 만들고, 일부는 민간 기업이 임대한 후 대형음식점으로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창업보육센터와 대형음식점 등 복합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주대병원이 교육시설이라서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해야 건물 일부에 대해 민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옛 제주대병원은 구 제주의료원을 인수해 지난 2001년 11월 1일 정식 개

원한 후 2009년 3월 아래동 신축부지로 이전하면서 비운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우선 제주대는 옛 제주대병원 신관과 구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30일 종소기업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창업보

육센터 건립 예산은 이번에 확보된 국비 15억과 제주대와 제주도 각각 10억 등 총 35억원을 투입해 옛 제주대병원 신관과 구관 일부를 확장하고 창업보육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다음달 실시설계에着手해 올해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과 신속한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내달 중에 실질적인 실무협력 창구로서 (가칭)구 제주대학교병원 리뉴얼 추진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주요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한울글로텍은 지난 1986년에 설립된 한울방적(주)에서 2008년 5월 섬유사업부분을 분리해 창립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매출의 70% 가량을 해외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부지포 수출기업이다. (주)한울글로텍은 특히 옛 제주대병원의 활용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인수해 어린이 놀이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옛 제주대병원에 창업보육센터와 대형음식점이 들어서면 상주인원 및 유동인구가 늘어 옛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해각서(MOU)가 양측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상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적 구속력이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옛 제주대병원이 창업보육센터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형음식점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없는데,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이거나 실현 가능성에 적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 무산될 여지도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옛 제주대병원 활용을 위해 서울의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양해각서 내용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면 병원 활용 방안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휠체어 일일 체험기 장애인인권대책위 & 프로젝트 팀 ‘다인’ 주관

“높은 턱 하나 가 천길 장애물”

올해 제주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그만큼 제주대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48명의 장애 학생에 대한 여건이 잘 갖춰진 편이다. 그런데 막상 장애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휠체어를 타고 온종일 캠퍼스를 돌아다녀야 하는 장애 학생들은 아주 사소한 데로부터 큰 문제까지. 그들을 가로막는 온갖 벽에 부딪치기 일쑤다. 기자는 그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기 위해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 프로젝트 팀 ‘다인’이 주관한 ‘휠체어 일일 체험-WITH MAKE’에 참가했다. 행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매일 한 명의 참가자가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일상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하루 동안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오는 29일부터 3일간 열릴 아리대동제 때 상영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이동 중에 금경사, 좁은 문… 끊임없는 장애물

휠체어 일일 체험을 하기로 한 지난 2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다. 오전 8시 40분, 대학원동 1층 로비에서 하루 동안 함께할 스태프들을 만나 전동 휠체어에 탑승했다. 전날 잠시 연습해 보기는 했으나, 그새 다시 생경해진 휠체어는 조종이 쉽지 않았다. 전동 휠체어는 스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로,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이 가능해 일반 수동 휠체어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 스태프를 통해 들어보니, 쌈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동 휠체어라 할지라도 일반 인들의 보행과 결코 같을 수는 없다. 오전 9시에 인문대학에서 있을 수업 때문에 황급히 대학원동에서 나와 이동을 시작하는데.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온 길이 그렇게나 멀고 험난한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우선 올라가는 길 경사가 굉장히 급했다. 더욱이 방향 전환이 힘든 탓에 한 자리를 밟아 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잦았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 주행은 더 까다

로웠다. 휠체어를 타게 되면 한 손은 스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해서 우산을 쓸 수가 없다. 궁여지책으로 입고 온 잡바의 모자를 꽁꽁 눌러쓴 채 이동하다 보니,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살피지 못해, 옆에 있던 스태프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인도는 도로에 비해 턱이 높아 휠체어가 지나가기 위해 무리가 따랐다. 장애 학생을 위해 도로와 인도 사이 경사를 마련해 놨지만, 이마저도 경사 각이 급해서 내려갈 때 몸에 힘껏 힘을 주지 않으면 충격이 고스란히 휠체어로 전해졌다. 인문대학으로 올라가는 소위 ‘폭풍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오를 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경사가 심하게 급하다 보니 몸의 균형이 뒤로 쏠려서, 중간에 내려야 하는 않을까 걱정되기까지 했다. 힘겹게 다 올랐을 때는, 두 개의 불라드가 주행을 가로막았다. 그 사이로 빠져 나가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스태프가 하나를 옆으로 옮겨준 후에야 겨우 이동할 수 있었다.



인도와 도로간 높이 차가 심해 도로로 다니는 게 차라리 편했다.



인문대학으로 올라가는 ‘폭풍의 언덕’은 경사가 심하게 가파라 오르내릴 때 아찔한 기분을 느꼈다.

강의실로 향하는 여성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건물로 출입시, 장애 학생은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수업 시간은 다가오는데,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원래 경로보다 훨씬 더 길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도착한 뒤에도 난관은 도사리고 있었다.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휠체어



강의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향 전환이 힘들어 스태프의 도움을 통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학생회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길, 굳게 닫힌 화장실 문으로 인해 들어가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매점 앞, 들어갈 공간이 좁아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친구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고정된 책상과 의자는 무용지물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는 바닥에 고정된 채 서로 붙어 있었다.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맨 뒷자리에서 책상 없이 수업을 받아야 했다. 달리 교재를 둘 데가 없으니 교재는 무릎에 둘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꼭 숙인 채 두 시간을 내리고 그 자세로 수업을 들었다. 고개는 고개대로 아프고 자꾸 원치 않게 점은 쏟아졌다.

쉬는 시간,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을 때 역시 당혹감은 이어졌다. 화장실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다. 가볍게 열리는 문이 아니어서 손으로 힘껏 밀려다보니 자연히 몸이 떠 휠체어와 멀어졌다. 어쩔 수 없이 발을 이용해 문을 밀 수밖에 없었다. 킹킹대며 겨우 문을 열고 난 뒤에도, 들어가는 간격이 좁아 또 한 번 지겨운 몸싸움을 반복해야 했다.

매점 앞에서 혼자 우물쭈물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매점으로 향했다. 물론 이때도 친구들이 건물 앞쪽으로 나갈 동안 혼자 건물 뒤로 돌아서 나와야 했다. 사소한 소외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점에 다다랐을 때도 불구하고 혼자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문이 좁아서였다. 친구들이 떡을 것을 고르는 동안 혼자 우물쭈물대며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사람들의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는 꼭 숙여졌다. 물론 사람들들의 시선은 비단 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곳곳을 지나가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다녔다. 대부분은 호기심에 찬 시선이었으나, 어떤 사람은 조롱 섞인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분명 잘못한 게 없음에도, 절로 주눅 들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친구들의 배려로 매점이 아닌 다른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4층에 있는 휴게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는 후진을 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 싶었던 엘리베이터 안 거울의 존재가 그날따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거울을 통해 뒤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수업을 모두 듣고, 신문사가 있는 대학원동 건물로 내려가는 길은 그나마 휠체어를 타

고 다니는 데 익숙해져 전보다는 수월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한 곳을 내려갈 때 기속도가 붙어 자칫 위험할 뻔하기도 했고, 학생회관에서 나오며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이 깔린 곳을 지날 때는 휠체어가 크게 덜컹덜컹거리는 등, 곳곳에 불편 요소들이 즐비했다. 체험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피부로 와닿는 것이었다. 대학원동 건물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3층 신문사까지는 휠체어로 가지 못하고, 1층에서 힘겨웠던 체험을 끝맺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어렵지 않아

기자가 느꼈던 그날 하루의 심정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 느낄 수 없던 것이 많았다. 사소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생활을 장애 학생들은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군소리 않고 묵묵히, 그리고 친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의 모토 ‘WITH MAKE-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이다. 이들이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에 대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작은 배려만 있다면, 학내 장애 학생들은 얼마든지 마음 놓고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소영 기자

문화 단신

제대미전 11일부터 5일간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40회 미술학부 작품전 ‘제대미전’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제대미전은 미술학부 학생들의 정기적인 행사로 개강해서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며 각 학생들마다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총 115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고지은 미술학부회장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도전과 열정의 끼를 담은 노력의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심포니 연극회 15일 문화회관 대극장서

제26회 제주대학교 월드심포니 정기연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관악부장 박종현 외 56명의 재학생, 대학원, 동문, 객원이 연주한다.

연주곡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며!-국립제주대학교여 영원하라, 베이스 트롬본을 위한 협주곡, 콘서트 밴드를 위한 포스트 카드, 선원과 고래, 피아노 협주곡 내림Op.16, 석양의 고요함에서, 작품 8번이다.

한편 제주대 월드심포니는 1981년 사범대학 음악교육과가 개설되면서 관악전공 학생들로 이뤄진 관악단으로, 1987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기간 ▶ 2012년 3월 6일 ~ 6월 5일

- ▣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 홈페이지 | www.jejusori.net
- ▣ 페이스북 | facebook.com/JDCAcademy
- ▣ 블로그 | blog.naver.com/JDCAcademy



강의 일정표

3월 6일	3월 13일	3월 20일	3월 27일	4월 3일	4월 10일	4월 24일
변정일 JDC 이사장 제주의 꿈 JDC의 도전 ‘영주국제자유도시건설’	정종칠 개그맨(목동자) 하고자 하는 것에 미쳐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정지영 “부리진화상” 영화감독 (고려대학교 전문교수) 미학정	김태선 블레이크 대표이사 (제주제주도민회장) 청성은 내가슴에	전목표 하남 경영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교수) 당신의 삶에 이기는 습관을 심어라	유영대 남서울대학교 교수 변희와 혁신을 위한 선순환 리더십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6월 5일	
고건혁 봉기동기획 대표 (경기하와 일몰봉)	김규형 3P 차기경영구조 대표 성공을 바인딩 하라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도전, 함께하는 내일	신상훈 방송작가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이예진 아나운서 친환경 카유나이키에이션	김용택 시민 자연과 나의 시 그리고 다불어 사는	